논어 19편 자장 4장 · 원문·풀이

子夏曰：「雖小道，必有可觀者焉，致遠恐泥，是以君子不爲也。」

독음 · 자하왈 수소도 필유가관자언 치원공니 시이군자불위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작은 기술에도 볼 만한 점은 있지만 그것에 매여 큰길로 나아가지 못할까 경계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夏 여름 하 하 / 曰 가로 왈 / 雖 비록 수 수

小 작을 소 소 / 道 길 도 도 / 必 반드시 필 필 / 有 있을 유

可 옳을 가 가 / 觀 볼 관 관 / 者 놈 자 / 焉 어찌 언 언

致 이를 치 치 / 遠 멀 원 / 恐 두려울 공 공 / 泥 막힐 니 니

是 이 시 시 / 以 써 이 이 / 君 임금 군 / 不 아닐 불

爲 할 위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